

광주·전남 민주평화국민회의 어제 출범

## 호남발 '범여 대통합' 촉발제 되나

孫·鄭·李·韓 캠프 활동 인사 10여명 참여 눈길

신당 경선후 민주당 후보 등과 단일화 추진키로

70~80년대 광주·전남 지역 민주화운동 세력이 중심이 된 광주·전남 민주평화국민회의가 12일 출범, 미완으로 남은 범여권 및 민주개혁세력 대통합과 대선후보 단일화 등 향후 대선구도에 미칠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회의에는 특히 손학규, 정동영, 이재한, 한명숙 등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캠프에서 중장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공동대표단과 운영위원회로 대거 참여하고 있고, 신당 경선 후 민주당 후보 및 독자 후보군과 단일화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광주·전남 민주평화국민회의는 12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평화개혁을 거치로 새로운 국민운동을 벌여나가겠다"며 출범을 선언했다.

국민회의는 결성 신인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 정신은 후퇴하고 일자리와 교육, 주거·복지 등 국민대중의 사회경제적 열망은 낡은 성장론에 묻혀버리는 등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가 실종될 위기에 처해 새로운 국민운동이 절실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화운동의 오랜

전통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의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국민운동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국민회의는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단일대회 형성과 정치쇄신을 위한 국민정치 운동 전개 ▲국민경선제를 통한 민주평화 개혁 국민후보 선출 ▲범민주평화개혁세력의 승리와 민생해결 등을 실천과제로 내세웠다. 또 이를 과제의 실천을 위해 국민경선추진협의회 등 3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이날 결성된 국민회의는 송기숙 전 문화 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이 연선회의 의장으로, 리명한 광주·전남 통일연대 상임대표, 이홍길 5·18기념재단 이사장, 임추섭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등이 상임고문으로 참여했다.

고문단에는 김재균 전 광주 북구청장, 임나평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등 15인이 맡았다.

특히 김 전 청장을 비롯 이형석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송태종 전 광주시의원 등 범여권 대선주자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인사 10여명이 고문단과 공동대표,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눈길을 모았다.

백정석 사무처장은 "70~80년대 광주·전남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70동지회와 80동지회를 주축으로 범여권 후보 캠프에서



12일 창립한 '광주·전남 민주평화국민회의' 정용화(오른쪽) 상임대표가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결성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표단은 김재균 전 광주 북구청장, 임나평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등 15인이 맡았다.

활동 중인 인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수구당전세력에게 정권을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 범여권의 경선이 끝나면 민주개혁세력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당과 민주당, 독자 후보간 단일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화 상임대표도 "단일화된 후보에게 힘을 모아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 중인 인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수구당전세력에게 정권을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 범여권의 경선이 끝나면 민주개혁세력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신당과 민주당, 독자 후보간 단일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화 상임대표도 "단일화된 후보에게 힘을 모아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식기자 who@kwangju.co.kr

## 신당 경선 '신정아 유탄' 주의보

한나라 대선 국면 정치 공세 호재 활용 가능성

신당 '李 검증론' 맞불 작전

청와대 밸 '신정아 파문'이 정국에 해일을 일으키며 대통합 민주신당의 국민경선은 물론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정아 파문'이 단순한 권력 비리 차원을 넘어서 남녀간의 스캔들이라는 멜로드라마 요인까지 겹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 가뜩이나 저조한 흥행을 보이고 있는 대통합 민주신당 국민경선이 외연발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신정아 파문'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차례로 밝혀질 경우 한나라당이 이를 대선 국면 내내 정치공세의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통합 민주신당은 이번 신정아

파문의 정치쟁점화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파장을 누그러뜨린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각을 세워 정쟁화하기보다는

의혹 규명의 주체를 검찰 쪽으로 돌립으로써 대통합 민주신당의 경선에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겠다는 뜻이다.

대통합 민주신당 지도부는 '이명박 검증론'을 뛰어넘어 맞불작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국적 민심이 교류하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공론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후보의 검증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금주부터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 후보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겠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운재·신정아씨 의혹과 관련, 권력 핵심부 인사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 연루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정아 의혹 윗선개입 규명

#### 한나라, 당력 집중 키로

한나라당은 12일 변양근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비호 의혹과 관련, 변 전 실장의 윗선이나 권리 실세의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당 권력형비리조사특위(위원장 흥준표)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신정아·정운재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검찰에 '신정아 의혹'의

윗선 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몸통은 따로 있다'고 권력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

흥준표 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운영으로 대선후보 경선에 만전을 기하고 민주당 중심의 후보 단일화를 이뤄 연말 대선에서 정권 창출의 신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 광주시당 위원장 최경주씨



민주당 광주시당은 12일 오후 2시 시당 대회의실에서 개원대회를 열어 최경주(사진) 현 시당위원장 직무대행 겸 북구을 지역위원장

장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광주시당 위원장에 선출했다.

신임 최 위원장은 "민주당 부활과 재건의 토대인 광주지역 7개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당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8·8 당원과 함께 하는 민주적 운동으로 대선후보 경선에 만전을 기하고 민주당 중심의 후보 단일화를 이뤄 연말 대선에서 정권 창출의 신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식기자 who@kwangju.co.kr

## 17대 大選 범여 경선 현장

### 정동영 '매머드' 선대위원회 발족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예비 후보가 12일 현역 의원을 전면 배치한 '매머드' 선대위원회를 발족했다.

최고 고문에는 이용희 국회 부의장, 우윤근 의원, 상황본부장 최규식 의원, 전략기획위원장 민병우 의원, 홍보기획 위원장 정철래 의원, 정책의제위원장 채수찬 의원, 선대민주부총장 이강래 의원, 조직위원장 김낙수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기용됐다.

또한, 양형일 정책총괄위원장을 필두로 비서실장에 박영선 의원, 수행단장 우윤근 의원, 상황본부장 최규식 의원, 전략기획위원장 민병우 의원, 홍보기획 위원장 정철래 의원, 정책의제위원장 채수찬 의원, 조직위원장 김낙수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기용됐다.

### 손학규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 편하게 하는 것"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개입 논란과 관련, "(대통령은)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보이는 게 있어도 보지 말고 듣리는 게 있어도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

며 이같이 밝혔다. 손 후보는 또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손학규 지지철회' 협박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 "사례는 분명히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청와대) 사람들이 알 것"이라며 "(전화를 받은 대상은) 참모가 아니라 1선에서 나를 드는 사람들이다. 그냥 우스울 뿐"이라고 말했다.

### 이해찬 "盧대통령, 후보 비판 적절치 않아"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후보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 민주신당 손학규 후보 등을 비판한 데 대해 "이명박 후보는 이미 확정됐고 이제 선거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 "선거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후보들에게 대해 너무 직접적인 언급

이나 행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후보들이 민감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이 '신정아 파문의 배후'로 자신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후보는 "대선 후보들과 관계있는 일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대선용으로 계속 활용하면 역효과가 나고, 국민의 수준이 높아 올해라고 생각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 후보 5명 서울서 첫 토론회

○민주당 대선후보 5명은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첫 토론회를 열고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순형 후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신명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인제 후보는 "중도개혁의 깃발을 들고 서민·중산층에게 희망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민석 후보는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렸던 것도 적자 막내 세종이었다.

민주당의 적자이자 막내인 저에게 정권 창출을 맡겨 달라"고 호소했으며, 신국환 후보는 "호남이 밀어주고 영남이 끌어준다면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펠승카드는 신국환"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한 여성 주인장 장상 후보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가치를 살려내는 과업을 위해서 출마했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업무내용

#### ■건설업 면허 (법인) 양도·양수

#### ■법인 M&A(분할 합병)

#### ■건설업 신규등록 대행

#### ■기업진단 (공인회계사)

#### ■공제조합 출자금 대납

#### ■기타 건설업의 업무상담

#### (주)우성건설정보

### 본사

TEL : (02)587-7400

FAX : (02)597-8855

### 호남지사

TEL : (062) 226-6300

FAX : (062) 943-2244

## 당뇨 병

### 엉터리 치료법으로 고칠 수 없다

● 당뇨가 치료되지 않는 것은 파괴된 췌장 내 "랑게르한스(Langerhans: 랑게르한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물질)섬"이 재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 "랑게르한스 섬"을 재생시킬 수 있는 기적의 물질은 없는가?

※ 문의하신 모든 분들께 세계가 깜짝 놀랄 기적의 물질 일명 "천지영천수"에 대한 소책자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 안내서 신청 문의 ○

070-7012-0246

## 마술 (Magic)

###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김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술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창가사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여 뇌신경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찾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자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 모 / 진 / 대 / 상 •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 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
- 비지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 분
- 초·중등생 계임중등직원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미술교사로 활용하실 분(취업주전)

###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